

간호인력의 퇴직추이에 관한 연구 - 사립종합병원을 중심으로 -

안정순*, 정문희

*고려병원 간호과, 한양대 간호학과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간호인력의 퇴직추이를 병원의 조직관리 측면과 숙련된 자원의 손실 측면에서 관찰할 목적으로 본 연구는 시도되었다.

시기 변화는 각 5년 급간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1977년~1978년, 1982년~1983년, 1987년~1988년, 1992년~1993년으로 정하고 서울시내 모 사립종합병원에서 위 기간중 퇴직한 간호사와 간호조무간호사 자료 284매, 간호조무사 자료 145매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코드화하여 입력한 후 Personal Computer의 SPS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하고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퇴직연령은 1987년~1988년까지 평균 27.1세까지 높아졌다가 1992년~1993년에 26.1세로 낮아졌다.

간호사의 퇴직연령은 최근에 올수록 길어져 1977년~1978년에 평균 2.1년이던 것이 1992년~1993년에는 3.8년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입사전 취업빈도는 1977년~1978년에 0.3회이었던 것이 1992년~1993년에는 0.0회의 차이를 보였다.

간호사의 최종근무평점은 시기별로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2.9점으로 보통 이상에 해당되었다.

간호조무사의 퇴직연령, 재직연한, 입사전 취업빈도와 최종근무평점은 시기별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앞서 언급된 순서대로 평균 25.0세, 3.6년, 0.5회와 2.6점을 나타내었다.

2. 최종근무평가 기록에 나타난 항목별 평점추이는 간호사의 경우, 외모 및 단정성만 시기적 평점차이가 있었고,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전문간호기술, 창의력, 대인관계와 외모의 4개 변수가 시기적으로 평점차이를 나타내었다.

각 시기별로 공히 우수한 평점을 받은 항목은 간호사의 경우 외모 및 단정성, 건강, 직무능력, 신뢰성, 침착성의 5항목이었다. 시기별로 특징적인 우수 평점항목은 1982년~1983년에 전문간호지식과 전문간호기술항목, 1987년~1988년에는 전문간호기술과 대인관계 항목이었다.

3. 퇴직 간호인력의 환경이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던 변수는 사회환경, 근무동선 환경, 숙련성환경, 개인생활환경과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4. 퇴직 간호인력의 퇴직추이에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환경 변수는 퇴직이유, 결혼상태, 현재의 숙소인 주소, 취미 유무이었다.